

광주시장·전남지사 후보 일자리 공약 비교해 보니



민주당 강운태 광주시장 후보가 6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옛 토지공사 광주전남본부에서 남양건설, 금광기업 등의 하청업체 대표들을 만나 긴급 자금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한나라 대기업 유치 민주당 중소기업도 육성

일자리 창출이 경제정책의 최대 과제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광주 시장·전남도지사 후보들의 각종 '일자리 만들기' 공약을 내놓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각 후보들의 일자리 공약을 분석한 결과, 당별로 한나라당은 여당이라는 점을 심분 활용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지역 내 대부분 시·군·구의 행정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노당 등 진보정당은 '일자리 몇십만개'식의 규모에만 치중하는 공약이 아닌 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업 2000개 유치 ▲사회적 기업 100개 육성 ▲1시·군 1번처 창업 ▲일자리 추진단 설치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일자리 10만개 프로젝트'를 내세웠다. 박 후보는 구체적으로 매년 5000개의 기업을 유치, 4년 동안 2천개를 채우는 한편 취약계층이 많은 전남의 여건을 고려, 사회적 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2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같은 당 박용주 전남지사 후보는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한다면서 저임금과 고용 불안에 시달린다면 의미가 없다"며 "체불임금지원기금 1000억원 조성"과 사회적 기업 육성, 공공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기업유치를 하더라도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민노당,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주력 진보신당, 녹색·복지 일자리 창출

◇한나라당=한나라당 정용화 광주시장 후보는 "포스코가 진출 추진 중인 LED사업을 광주에 유치, 8만7000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한편 광주 민·군 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하고 그 부지에 2조원을 들여 기차차 공장을 증설 이전할 경우 100만대 생산라인 구축과 2만여명의 고용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또 남도한식문화센터 건립 등 남도한식의 세계화를 통해 1만5500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축구박람회 등 각종 국제 대회 유치로 수천여명의 생산 유발과 수천명의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공약했다.

◇민주당=민주당 강운태 광주시장 후보는 10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세우고 구체적으로 ▲대기업 1만5000개 ▲중소기업 1만5000천개 ▲문화중심도시 1만2000개 ▲R&D 특구 8000명 등 민간부문에서 5만개 ▲사회서비스 3만개 ▲희망근로 2만개 등 공공부문에서 5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를 위해 OLED(유기발광다이오드)와 플라스틱셀 분야에 외국 대기업 3~5개를 유치하고 기자동차 연간 생산 능력을 50만대에서 70만대로 늘리는 한편, 중소기업 15000개의 '벌떼클럽'(풀링시스템)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산업)부문 일자리 창출 비중을 민선 4기 18%에서 민선 5기에는 50%까지 늘리고 대형마트와 SSM 등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장려하기로 했다.

◇민노당=민노당 장원섭 광주시장 후보는 거대 정당의 '10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을 '사기'로 규정하고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하는 등 사회공공서비스 인력지원센터를 통한 정규직 1만개 일자리 창출과 청년의 무고용에 도임을 통한 청년실업 해소 등을 일자리 공약으로 제시했다.

◇진보신당=진보신당 윤난실 광주시장 후보는 일명 '일자리 혁명'이란 공약을 통해 "녹색일자리와 복지일 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광주시에서도 직접 녹색·복지일자리에 대해서는 직접 고용을 늘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광주 서구청장 후보 김선옥씨

최고위 전략공천...광주 첫 여성 구청장 후보

경선이 무산된 민주당 광주 서구청장 후보에 김선옥 예비후보가 전략 공천됐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6일 "최고위원회의가 서구청장 후보에 단수 추천된 김선옥 후보를 전략 공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후보가 민주당 첫 광주지역 여성 구청장 후보로 사실상 확정됐다. 광주 서구청장 후보 공천은 애초 전주 언 서구청장과 김 후보를 대상으로 국민 참여경선을 할 예정이었으나 전 청장이 관권선거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경선이 무산됐었다. 김 후보는 "공천 결정을 당원과 서구민의 지방선거 승리·정권교체·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요구로 받아들인다"며 "광주 첫 여성 구청장 후보로서 사람 사는 세상, 사회적 소수의 정치참여 확대의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민주 진도군수 후보 어떡하나

법원 경선 효력정지 결정

예비후보군 대상 전략공천

남구 광역의원도 교체 불가피

광주지방법원이 6일 민주당 진도군수 후보 경선에 이어 광주 남구 제2선거구 광역의원 후보 경선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경선 결과가 사실상 무효화됐다. 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당 선관위의 논의를 거쳐 이르면 7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은 진도군수 후보 및 남구 광역의원 후보가 아직 최종 인준되지 않은 상황인데다 후보등록일이 12~13일이라는 점에서 늦어도 이번 주말을 전후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전략공천을 통한 후보 교체 방법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공당이 예비 후보의 자격 조건도 확인하지 않은채 경선을 진행한 것 자체가 코미디"라며 "문제는 광주·전남지역 곳곳에서 부실 경선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데도 책임지는 인사가 단 한명도 없다는 것이며 이는 민주당의 무능과 오만을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고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로 보일 수 있다. 둘째,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이동진 후보의 공천을 밀어붙이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선관위가 민주당의 후보 접수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현실화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에서는 진도군수 후보 경선 자체를 무효화하고 기존의 예비후보군들을 대상으로 전략공천을 통해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방법이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도 탈락 후보의 반발과 무소속 출마를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민주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광주 남구 제2선거구 광역의원 후보 경선과 관련하여서는 후보 교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법원이 김만곤 후보에 대해 지난 2008년 통합민주당 탈당 이후 복당이나 재입당을 하지 않아 경선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전략공천을 통한 후보 교체 방법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공당이 예비 후보의 자격 조건도 확인하지 않은채 경선을 진행한 것 자체가 코미디"라며 "문제는 광주·전남지역 곳곳에서 부실 경선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데도 책임지는 인사가 단 한명도 없다는 것이며 이는 민주당의 무능과 오만을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전략공천 무안군수 후보는 누구?

서삼석·정해군 대립속 민주 오늘 최고위원회의서 결정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안군수 후보를 전략공천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최고위원회의에 제출한 가운데 어떠한 결과가 도출될 것인지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무안군수 후보 선정은 무안군을 지역 구로 하고 있는 이윤석 국회의원과 황호순 지역위원장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펼쳐지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6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무안군수 후보 선정은 당초 시민공천배심원제가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관련 및 불공정 시비 등으로 정상적으로 경선이 치러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략공천을 통해 후보를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최고위원회의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무안군수 후보 전략공천 문제가 논의됐으나 이윤석

의원과 황호순 지역위원장의 극명한 이견에 따라 결론을 내지 못하고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윤석 의원과 황호순 지역위원장에 무안군수 후보 선정과 관련, 합의점을 도출하라고 요구했으나 6일 국회에서 만난 두 사람은 오히려 뽀뿌움을 벌이는 등 추태를 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무안군수 후보 선정은 이르면 7일, 늦어도 주말에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지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황호순 지역위원장의 지원을 받고 있는 서삼석 군수, 이윤석 국회의원을 등에 업고 있는 정해군 예비 후보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최고위원회의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제외된 후보는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Vfood featuring a woman and a product box. Text: '비타민! 난 천연원료가 아니면 안먹는다' (Vitamin! I won't eat unless it's natural ingredients). Includes contact info: 1522-7571 / www.vfood.com